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8호

E-mail : ihonam@naver.com

2019년 6월 18일 (음력 5월 16일) 화요일

5·18 美 기밀문서 확보 위한 연구 속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기밀 문서 확보를 위한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 산하 5·18 진실규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근 미국 기밀문서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에 나섰다.

5·18 핵심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로 꼽히는 미 기밀문서 확보 실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미 기밀문서엔 5·18 당시 발

5·18 연구진, 요구 문서 ‘목록 특정’하기로
생산기간 분류·핵심 키워드·사안별 구체화
연구마치는대로 정부·진상조사위에 전달

포·하살 경위, 헬기 사격과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에 소속된 군 기록물 분석 전문가와 5·18 연구진들은 미국 정

부에 요청할 기밀문서 ‘목록’을 특정하기로 했다.

1980년 5월 전후 한미 양국의 정보기관·군 당국·대사관 등의 전문·상황일지·회의록·보고서 내

용을 검증해 공개 요구 문서명을 구체화한다.

기존에 공개된 미 기밀문서 3530쪽(체로키 파일 등)의 누락·삭제된 내용 등도 두루 살핀다.

특히 문서를 생산 기간별로 분류하는 작업과 키워드(진상 규명 핵심 단어, 한미 군사 용어 등)를 지목키로 했다.

발포 명령 등 5·18 핵심 의혹별로 필요한 자료의 목록도 만들 계획이다.

아르헨티나가 ‘법정부 차원의 기밀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만행과 관련한 미국 자료 16개 기관 보유 5만여 쪽)를 이관받은 것처럼 5·18 미 기밀문서 확보의 당위성도 제시한다.

자문위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작업은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는 연구를 마치는대로 정부와 향후 출범할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문서명·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미 기밀문서 원본을 이관받기 위한 연구를 촘촘하게 진행하겠다. 기밀문서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단체·재단은 이달 초 청와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 기밀문서 원본 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기밀문서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정부는 관련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 기자



전남대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먹는 이개호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를 찾아 대학생의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2019 천원의 아침밥’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전남대 재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전남서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6월 셋째 주 모기 채집서 발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일본뇌염 예찰사업으로 수행된 6월 셋째 주 모기 채집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17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에선 9월에 1명이 발생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용적이 등

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주로 4~10월에 발생한다. 특히 8~9월에 많이 생기며, 오후 10시까지 활발하게 활동한다.

일본뇌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나 고열(39~40도),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이후 계속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고 대개 발병 10일 이내에 숨진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야외 활동 시 밝은 색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는 여름철 야외활동 시 모기 회피 및 방제 요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양림

본사 새 주인 맞아 새롭게 도약합니다

제2창간 정신으로 정론구현에 앞장
로그 새로 제작...새 출발 각오 다져

날로 사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호남신문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 도약을 꾀한다.

호남 제일의 언론을 지향하는 호남신문은 제2창간의 자세로 정론구현을 위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회사 로고부터 새롭게 제작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신문의 위상에 걸맞게 새출발하는 각오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우주를 형상화한 타원형 안에 ‘태풍의 눈’이자 ‘사람이 뛰는 모습’을 이미지화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상하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위쪽의 빨간색은 강인함과 정열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래의 노란색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무한 역동성과 함께 사람사는 법세가 나는 신문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한자의 제호도 한글로 바꿔 보다 신선했고 편안한 이미지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와함께 현재 동구 학동 사옥시대를 마감하고 상무지구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다 공격적이고 내실있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주와 더불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호남신문이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보다 힘찬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湖南新聞

전남도, 양파·마늘 사주기 ‘팔 걸었다’

서울시청 등 43개 기관·단체와 소비촉진 나서

전남도가 서울시청 등과 손잡고 시름에 잠긴 양파 및 마늘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청, 광주시청, 시군, 전남도 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나주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승규)은 200여 조합원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에서 ‘사랑의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적다. 하지만 생육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내렸다.

지난 7일 가라시청의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4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가량 내렸다. 깐마늘 도매가격은 1kg당 5433원으로



지난해보다 19%가량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전남본부부는 은행 우수고객에게 사은품 활용, 농협 및 남해화 등 계열사와 서울과 광주 등 도시 농협에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식업중앙회전남지회는 국내산 햇양파, 양파절임 김치 등의 식단 제공을 유도하고 이를 홍보한다.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는 학교, 연수원, 기업체 등 구내 식당에 양파 이용 식단을 제공토록 유도한다.

김정환 기자

